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3월 9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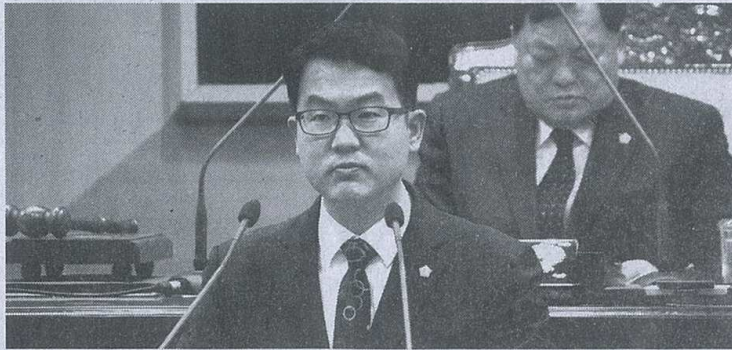
동북일보 5면

시비, 구비 중복 편성된 예산, 중복집행 낭비 안돼!!

구본승의원
(무소속/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구본승 의원은 시비와 구비로 중복 편성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편성되었다며 모두 중복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하였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이미 편성된 예산이니 시비, 구비 2억 4천만 원을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지원에 모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어 "시비, 구비로 중복 편성된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예산 2억 4천만 원을 모두 집행해서는 안되며 구의회 예산심사 시 보고한 사실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1억 2천만 원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구본승 의원.

덧붙여 구의회 회의록에는 '등재추진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착수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요청해왔다. 나머지는 모금으로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기록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 의원은 '만약에 시비, 구비를 합쳐서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한다

면 이는 강북구의회 예산심사 시 강북구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했던 것을 몇 개월 만에 뒤집는 것이라며, 지출 근거가 없는 예산낭비 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제기하며, 사실에 근거한 예산집행을 촉구하며 앞선 질문에 대해 강북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서울포스트 6면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구본승의원

시·구비 중복편성은 예산낭비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장(미아, 송중, 번3동)은 지난 3월 3일 개최된 제18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비와 구비로 중복 편성

된 사업 예산은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제기하였다.

구본승 의원은 이번 발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합리적인 지출이며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발언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어 "시비, 구비로 중복 편성된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예산 2억 4천만 원을 모두 집행해서는 안되며 구의회 예산심사 시 보고한 사실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1억 2천만 원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구본승 의원은 5분 발언으로 '만약에 시비, 구비를 합쳐서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한다면 이는 강북구의회 예산심사 시 구의원들에게 보고했던 것을 몇 개월 만에 뒤집는 것이다. 또한 지출 근거가 없는 예산낭비 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제기하며 강북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박경수 강북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은 추후 서면 답변하기로 하였다.

시비, 구비 중복편성된 예산, 중복집행 낭비 안돼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료위원장(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3월3일 개최된 제18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비와 구비로 중복 편성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편성됐다고 모두 중복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본승 의원은 이번 발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합리적인 지출이며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발언하게 됐다”고 밝히고 “시비, 구비로 중복 편성된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예산 2억 4천만원을 모두 집행해서는 안되며 구의회 예산심사시 보고한 사실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1



면 답변하기로 했다.

억 2천만원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본승 의원은 “만약에 시비, 구비를 합쳐서 1억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다면 이는 강북구의회 예산심사시 구의원들에게 보고했던 것을 몇 개월만에 뒤집는 것이다. 또한 지출 근거가 없는 예산낭비 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제기하며 강북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대신하여 하철승 부구청장은 추후 서

“시·구비 중복편성된 예산, 중복집행 낭비 안돼!”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5분 자유발언’ 에서 강조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료위원장인 구본승(미아동·송중동·번3동) 의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제18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비와 구비로 중복 편성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편성됐다. 모두 중복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이날 구본승 의원은 이번 발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합리적인 지출이며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돼 발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비·구비로 중복 편성된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



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예산 2억 4천만 원을 모두 집행해서는 안되며 구의회 예산심사시 보고한 사실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1억 2천만 원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본승 의원은 5분 발언으로 “만약에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1억 2천만 원을 초과해 집행한다면 이는 강북구의회 예산심사시·구의원들에게 보고했던 것을 몇개월만에 뒤집는 것이다”며 “지출 근거가 없는 예산낭비 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제기하며 강북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유영일 기자